신년 필진을 소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논설위원 제도를 신설해 전문적인 오피니언 칼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행 · 성보 · 생활법문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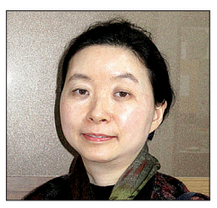

선업 스님


방영준


최종남


이윤호


이화행


황수경

명상 · 사회 · 학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오피니언 칼럼 '기대'

현대불교신문사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논설위원 제도를 다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오피니언 칼럼을 강화해 불교계에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려 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선업 스님은 명상 · 수행 · 상담 일선에서 대중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이다. 현재 한국차명상협회에서 차담 명상 전공 교수와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1984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방 교수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는 일본 사천왕사국제불교대학,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특히 유식학의 세계적 권위자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제자로 공부했다. 1998년 귀국, 위덕대를 거쳐 중앙승가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학 박사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제도, 이론적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범죄학과 경찰학 그리고 피해자학과 관련한 100여 편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한 해박한 그의 해설이 기대된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보쿰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은 방송 미디어 전문가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불교 언론이 나아갈 길을 칼럼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는 명상 및 심리 상담 전문가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도 꾸준히 소임을 맡아왔다. 명상 상담뿐만 아니라 여성불자 신행에 대한 전문 칼럼이 기대된다.

법문 · 성보 · 수행 등 읽을거리 대폭 강화

생활법문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출가 60년을 넘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 · 한국불교학회장 · 동국대 석좌교수)은 금강반야와 법화수행 그리고 아함의 가르침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회통했다. 복지 실천은 보시바라밀과 인연 연기의 인과 수행임을 강조하는 성운 스님은 그 회통의 법을 사회 곳곳에서 설하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수행 이력의 결실인 성운 스님의 60년 회향 법문 '보리수 아래서'를 3월 첫 주부터 A2면에 연재한다. '관계(연기)'로 시작해 아름다운 관계 맺기의 불교적 해답으로 이어지는 이 연재는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박삼중 스님은 재소자 교화에 나선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스님은 반세기동안 전국의 재소자들을 찾아 교화 설법을 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지켰다. 그 세월 속에서는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이를 살려준 믿을 수 없는 원력을 이룬 사연도 있다. 박삼중 스님의 50년 세월동안 가슴 속에 켠켠히 묻어둔 잊을 수 없는 인연들과의 남기고 싶은 일화를 인물 중심으로 격주에 걸쳐 소개한다.

성낙윤의 〈불교매듭〉



스님들의 가사장삼을 이어준 매듭은 검박함을 미덕으로 삼는 승가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장식이었다.

불교의례와 의식에도 사용된 매듭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한국전통문화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매듭연구가 성낙윤 선생과 매듭염주 등 직접 매듭 엮는 법을 따라하며 불교문화 속 매듭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여여원 원장 이란 법사가 만화로 들려주는 선지식과의 작은 대화들이다. 짧은 대화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란 법사는 해인사 전계사 종진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으며, 강진 백련사 재가자(1기) 무문관 안거 수행과 벽송사 선강법회 등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 공부했다. 공부 중에 가슴에 와 닿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들려주는 설법의 시간이다.

교리

원욱 스님의 〈경전 산책〉



서울 목동에 자리한 반야사는 주택가에 위치해 목탁소리 조차 내지 못한다.

하지만 매주 경전강좌를 통해 도심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지 원욱 스님의 경전 강좌는 유쾌하다. 암투병 속에서 경전읽기를 통해 극복한 경험이 녹아 있다. 다양한 경전을 재미있게 해설하는 스님의 경전 강좌. 산책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자.

명상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조계종 단일계단위원이자 팔공총림 율주인 지운 스님은 자비선 명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남방불교의 전승, 북방불교의 전승, 선가의 전승이라는 세가지 수행법의 단계를 보리심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회통한 수행이다. 수행의 끝은 결국 자비희사.

자비선 명상을 통해 생활 속 명상과 실천을 알아가자.

고승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초의선사의 방계손인 응송 스님에게 '전다계'를 받은 초의차 연구의 선구자다. 평생을 차와 초의선사를 연구한 박 소장이 이번 연재를 통해서는 초의선사와 서간문으로 교류했던 인물들을 조명한다. 새로 발굴된 95통의 편지에는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당시 선지식 · 지식인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행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기행〉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인 현견 스님은 북경서 15년간 유학하며, 중국 선문화를 심도깊게 연구했다. 이번 연재에서는 초기 선종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축약해 다루려고 한다.

예를 들면 중국서 달마 이전의 선법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선법들이 인도불교와 어떠한 역사적 및 사상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윤창화의 〈중국선원의 생활과 철학〉



재야 불교 학자이자 불서출판인인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2008년부터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집필을 시작해 2017년 이를 출간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런 결과 2017년 불교평론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선과 중국선을 아우르는 선종사찰 곳곳에 담겨있는 철학을 탐구한 열정과 소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면을 통해 맛보자.

성보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성보(聖寶)는 귀중한 불교의 보물이자 전통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의 질곡을 거치면서 적지 않는 수가 도난 · 유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이 사찰별 도난 문화재들을 연재를 통해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도난 성보를 기록하고 알려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재학의 〈한국산사의 장엄세계〉



〈절집천정, 화엄의 빛〉 연재를 통해 사찰 천정 장엄 분야를 개척한 노재학 사진작가가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독자들에게 한국산사의 장엄을 세밀하게 다시 소개한다.

전문 사진 기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사찰 7곳의 세부적인 문양과 성보들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불교 경제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지낸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경제학의 구루다. 지난 2015년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내며 경제계와 불교계서 큰 반향을 일으킨 윤 교수는 이번 연재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을 현대인들의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낸다.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등을 펴낸 사찰경영 전문가로 사찰경영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사찰관리, 리더십, 대사회활동, 전법교화 등 각 분야에서 사찰의 양적성장과 질적 성숙의 균형방안을 모색하고, 사찰단위의 경영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재는 사찰 현대화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謹賀新年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 교정원장 성광
감찰원장 일도 /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 제주제2본산 주지 남전
부산분원 주지 보문 / 대전분원 주지 범행
고성분원 주지 성범 / 서울분원 주지 지원
대구분원 주지 도현 / 일본분원 주지 성도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